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올해 1분기 미 성장 줄어...연율로 -0.5%
- Bloomberg: 5월 미 상품 무역 적자 커져...수출 크게 감소
- Bloomberg: 미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21년 이래 최고치
- Bloomberg: 트럼프, “파월 후임에 3~4명 후보 검토”
- Bloomberg: 보스턴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적극적인 인내’ 필요... 신중한 접근”

[미국 금융]

- WSJ: 달러, 2023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
- WSJ: 대형 은행 자기 자본율 기준 완화 추진

[주택]

- WSJ: 높은 모기지 금리 지속으로...미 신규 주택 판매 급감

[오일]

- WSJ: 하반기 유가, 공급 과잉으로 하락 압력 예상

[AI]

- The Economist: AI가 광고 사업을 뒤흔들고 있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트럼프 관세로 상품 가격 상승, 소매업체들 반품 재판매 서둘러
- WSJ: 향후 온라인 구매는 델타 항공에서 배송될 수 있다
- WSJ: 월그린, 헬스케어 및 비용 절감으로 매출 상승...비상장화 앞두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Economy Shrunk More Than Previously Estimated Last Quarter

올해 1분기 미 성장 줄어...연율로 -0.5%

- 연방 상무부의 새로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당초 추정보다 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GDP가 시즌 조정치를 기준으로 연율 -0.5%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추정치인 -0.2%보다 더 위축된 수치다. GDP 수치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되면 조정된다.
- 이 같은 성장 위축은 소비자 지출과 수출이 하향 조정된 결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Merchandise-Trade Deficit Unexpectedly Widens on Exports Drop

5월 미 상품 무역 적자 커져...수출 크게 감소

- 5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커졌다. 팬데믹 이후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수입은 큰 변동이 없었다.
- 상품 무역 적자 규모는 11.1% 감소한 966억 달러로, 연방 상무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861억 달러보다 감소폭이 더 큰 수치다.
- 상품 수출은 5월에 5.2% 줄었는데, 특히 원유 등 산업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오일 가격은 올해 초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
- 이 같은 5월의 적자를 고려할 때, 2분기 경제 성장에 무역이 기여하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Recurring US Jobless Claims Jump to Highest Since November 2021

미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21년 이래 최고치

- 반복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의미다.
- 6월 14일에 끝난 주간에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19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고용주들의 채용이 소극적인 상황이지만, 고용주들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리치몬드 연준 총재는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을 부담하면서 올 여름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Says Three or Four People on List to Replace Fed's Powell

트럼프, “파월 후임에 3~4명 후보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후임자로 3~4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파월 의장을 "매우 둔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금리를 2.5%포인트 인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내년 5월에 물러날 예정이며, 트럼프는 그의 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 한편,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는 후임 후보자에는 현 재무장관과 전 연준 이사였던 Kevin Warsh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Collins Favors 'Actively Patient' Approach to Rates

보스턴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적극적인 인내’ 필요... 신중한 접근”

- 보스턴 연방준비은행(Susan Collins)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한 관세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연준의 통화 금리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내하는(active patience)' 접근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즉, 금리 인하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정책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실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 Collins 총재는 현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소 제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결과에 대비하는 좋은 입장에 있다고 평가했다. 즉, 새로운 경제 데이터와 경제 전망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리치몬드 연준 총재인 Tom Barkin 역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Dollar Flirts With Lowest Levels Since 2023 달러, 2023년 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

- 달러가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이며, 오늘 목요일 2023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빠르게 지명할 가능성 있는 소식과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이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월스트리트 달러 인덱스는 오늘 오전 94.16을 기록했다.
- 이 수치는 지난 4일 동안 1.3% 하락하며, 4개월 이래 가장 긴 약세 기간을 기록했다.

WSJ 기사

WSJ: U.S. Regulators Move to Ease Financial Crisis-Era Bank Capital Rules

대형 은행 자기 자본을 기준 완화 추진

- 연방준비제도는 금융 위기 이후 강화했던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형 은행들의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완화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은행 규제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주택]

WSJ: U.S. New Home Sales Slump as High Mortgage Rates Persist 높은 모기지 금리 지속으로...미 신규 주택 판매 급감

- 미국의 5월 신규 단독 주택 판매량은 전월 대비 13.7% 감소한 623,000채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 695,000채를 크게 밑돌았다.
- 2024년 5월과 비교해도 판매량은 6.3% 감소하며 지속적인 수요 둔화를 보였다.
-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4월 판매량은 722,000채로 하향 조정되었다.
- 5월 주택 재고는 507,000채로, 4월보다 1.4% 늘었으며, 이는 9.8개월치 공급량에 해당한다.
- 전국 부동산업자 협회는 기존 주택 판매가 5월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 못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Likely to Be Under Pressure in 2H 하반기 유가, 공급 과잉으로 하락 압력 예상

- Citi 그룹 분석가들은 하반기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 OPEC+는 7월 초 회의를 통해 8월부터 공급량을 결정하며, 이는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Citi 그룹은 3분기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66달러, 4분기는 63달러로 예측했다.
- 현재 WTI 원유 선물은 0.2% 하락한 64.79달러, 브렌트 원유 선물은 0.3% 하락한 67.52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AI]

The Economist: AI is turning the ad business upside down AI가 광고 사업을 뒤흔들고 있다

- 광고 산업만큼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 온 분야는 없다. 이러한 특성은 6월 칸 영화제에서도 잘 드러났으며, 업계는 “광고를 통한 창의성이 기업과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인간의 창의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인 구조의 이 업계가 인공지능의 기술 혁신에 직면했다.
-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는 브랜드가 달성을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출할 수 있는 투자액만 결정되면 그 외에 나머지는 AI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AI CEO Sam Altman 역시 현재 마케터들이 광고 대행사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업무의 약 95%를 이제는 AI가 쉽고 빠르게, 무료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Retailers are rushing returns back to resale market as Trump tariff costs hit item economics 트럼프 관세로 상품 가격 상승, 소매업체들 반품 재판매 서둘러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매업체들은 반품 상품을 신속히 재판매 시장으로 돌려보내는 역물류(reverse logistics)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있다.
- Optoro의 Casey Chroust COO는 반품 처리가 신속할수록 이미 관세가 지불된 상품을 재판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24년 미국 역물류 시장은 1,500억 달러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Optoro에 따르면, 85% 이상의 반품 상품이 재판매 가능한 상태이며, 특히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반품은 평균 10~3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
- 고급 디지털 창고형 매장 기업 Stork는 지난 3개월간 중고 상품 재고가 74% 증가했으며,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외 반품 처리를 며칠 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WSJ: Your Next Online Purchase Could Be Delivered by Delta 향후 온라인 구매는 델타 항공에서 배송될 수 있다

- 델타항공은 Delta Cargo DeliverDirect라는 새로운 소포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며, 항공기 화물칸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 SmartKargo 플랫폼과 트럭 운송 업체와 협력해 문앞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미국 내 하루 수십만 개의 소포 배송을 목표로 한다.
- GoBolt에 따르면, 델타의 배송 비용은 FedEx나 UPS보다 20~25% 저렴하며, 정시 배송 성과는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 델타는 현재 Figs 스크럽과 Arezzo 신발 같은 제품을 하루 수만 개 배송하며, FedEx와 UPS에 비해 소규모지만 점차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그러나 승객 수하물, 장기 이식용 물품, 유해 우선순위로 인해 배송 지연이나 화물칸 제외 가능성 같은 잠재적 단점도 존재한다.

WSJ 기사

WSJ: Walgreens Sales Rise on Healthcare and Costs Cuts Ahead of Going Private 월그린, 헬스케어 및 비용 절감으로 매출 상승...비상장화 앞두고

-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최근 분기에 매출 증가와 손실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민영화를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 3월에 사모펀드 시카모어에 100억 달러에 매각된 월그린스는 2025년 3분기 또는 4분기에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최고경영자 Wentworth는 미국 헬스케어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했으나, 약국 매장 및 소매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반 소비재, 이른바 전단 매출(front-end sales)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 5월 31일로 마감된 3개월 동안 매출은 363억 5천만 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손실은 3억 4천 4백만 달러의 흑자에서 1억 7천 5백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 세부적으로, 미국 소매 약국 매출은 285억 달러에서 307억 2천만 달러로, 국제 매출은 57억 3천만 달러에서 61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미국 헬스케어 매출은 21억 3천만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파월 후임' 조기 발표설에...달러도 들썩

**달러 가치 3년 만에 최저
7월 금리인하 확률은 18.6%→24.8%**

미국 달러화 가치가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182 하락한 97.497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